

# 민주당 바람 vs 현역의원 조직

**목표**  
 김원이 '새 인물론' 바람몰이  
 박지원 12년간 지역 다져  
 윤소하 고경표 앞세워 표밭갈이  
 3파전...승부 예측 불허

<b>김원이(민주·51)</b> 	<b>박지원(민생·77)</b> 
<b>학력</b> 성균관대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전)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 (전)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b>학력</b> 단국대 상경대학 상학과 졸업 (현)국회의원 (전)문화관광부장관
<b>경력</b> ·목포역 역세권 상권 활성화 ·대기업 풍력 사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원도심 대 개조 프로젝트 추진	<b>경력</b> ·원도심 역사관광 중심지 육성 ·신도심 교육 문화 도시 조성 ·목포대 의과대학·대형병원 유치

동아시아 관문도시 목표'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목포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도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목포역 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목포역 부지에 시민광장 조성, 원도심 교통난 완화,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인 대기업 풍력 사업을 목포에 유치해 5000개의 목포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5선 도전에 나서는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지역 예산 확보와 일자리 창출,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끌어오는 의정활동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오직 목포 예산 및 일자리, 호남 중심 정권재창출, 호남 대통령 만들기, 능력 있는 후배 지원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해경 서부수리정비장, 국제수산물수출단지, 국가에너지융복합산업 단지 선정,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목포 개항 123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면서 "이런 지역 대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사업을 시작한 국회의원들이 마무리해야 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 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미래 전략산업(관광, 수산식품, 에너지 산업) 육성 내용이 담긴 '337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목포를 문화·교육·안전의 3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원도심은 역사관광 중심지로, 신도심은 교육 문화 도시로 만들고 목포대 의과대학·대형병원 유치로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당의 윤소하 의원은 30여 년간 시민운동을 하며 4년 전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 의원은 활발한 의정 활동이 강점으로 꼽힌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지역의 핵심 민원 해법을 제시하면서 민생현장을 파고들어 연일 정책 행보를 펼치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들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열심히 뛰었다. 4년간 133개의 법을 만들었고, 그 중 4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목포 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목포대

**윤소하(정의·58)**  


**목포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전)목포대 의대 설립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현)정의당 원내대표

- 공공의료 중심도시 목포 건설
- 2000만 관광객도시 목포 육성
-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연구용역을 교육부가 할 수 있도록 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다도해와 서남권 관광의 허브 도시이자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2000만 관광객도시 목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 중심도시 목포 ▲미래해양도시 목포 ▲2000만 관광객도시 목포 등 3대 비전을 가지고 목포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는 공약도 내놴다.

이밖에 2028년 세계 섬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고, 서산·온금 지역을 가족 펜션형 숙박시설과 옛 조선내화 부지를 활용한 복합 문화단지 조성 등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 세 후보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각 당의 선거 전략과 향후 정치적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변화에 따라 지역 민심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된다. 특히 목포는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만큼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선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3자 대결구도 속에 민주당 김원이 후보가 높은 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탁월한 예산확보 능력과 인물론을 내세우는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고령' 프레임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윤소하 의원의 '독표율' 과 이 득표율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도 선거에 변수로 꼽히고 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전·현직 국회의원 '리턴매치'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지지세 앞세워 표밭다져  
 황주홍 인물론 내세워 3선 도전  
 김화진 선거 결과 영향 줄지...  
 지연·혈연 얽힌 표심 향배 주목

<b>김승남(민주·53)</b> 	<b>황주홍(민생·68)</b> 
<b>학력</b>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전)제19대 국회의원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b>학력</b> 미국 미주리대학교(정치학 석사) (전)제19·20대 국회의원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b>경력</b> ·농어민기본소득보장법 등 농어촌 관련법 제정 ·전남 중남해안권 관광 허브 육성 ·지방소멸위험과 국토불균형문제 해소	<b>경력</b> ·농민수당 도입 등 농정 5대 정책 추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역구 교통 여건 개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53) 예비후보와 현역 민생당 국회의원 황주홍(68)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김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세 등에 얽고 '고보장강'에 민주당 깃발을 새로 꽂을지, 3선 기초단체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황 예비후보의 '인물론'이 유권자에게 먹혀 들지 관심이 쏠린다. 무소속 김화진(61) 예비후보가 2강 체제 선거구도에서 막판까지 완주하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고흥 출신의 김승남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혈투 끝에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통 한명진 예비후보를 따돌리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지지세를 순풍삼아 제19대에 이어 21대 국회 등원을 노리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전남대 총학 생회장과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19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자, 문재인 대통령후보 전남선거대책 위원장으로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다.

이에 맞서는 재선의 황주홍 예비후보는 '인물론'을 앞세우며 3선 고지를 밟겠다는 각오다. 3선 강진군수를 지내며 '청자골 강진'을 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켰고, 내리 8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하며 쌓은 경력을 무기 삼아 표밭을 갈고 있다. 황 예비후보는 "국회는 다선 중진 우선 문화가 형성돼 있다. 3선 이상 돼야 힘 있는 자리를 맡을 수 있고 예산 및 법안 처리에서 지역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3선 의원 정치력으로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도 농어업과 지역구 현안을 쟁길 수 있다"며 중진의 힘을 강조한다.

'민주당 바람 vs 인물론' 못지않게 4개 기초자치단체가 1개 선거구로 묶여져 있는 만큼 '후보자 고향'에 따른 표심의 향배도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학연·지연·혈연 관계가 여전히 중요시되는 만큼 지역별 투표성향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단순히 유권자 규모만 보자면 고흥 6만

여명, 보성 4만명, 장흥 3만5000명, 강진 3만3000명 수준으로 고흥 유권자 숫자가 나머지 3개 군을 압도한다. 특히 고흥군 유권자들에게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고흥 출신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스며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흥 표심이 김 예비후보에게 쏠리고, 나머지 3곳의 표심이 황 예비후보에게 쏠린다면 이러한 출신지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또한, 송귀근 고흥군수가 민생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력이 있는 두 후보는 모두 '내가 농어촌 전문가'임을 자부하며, 농어촌 살리기 공약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김 예비후보는 ▲농어촌 살리기 법제화 등 제도화 ▲중남해안권 관광 허브 육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는 "농업농촌의 위기는 경쟁과 희생만 내세워 온 잘못된 농업정책 때문"이라며 "농정철학과 기초를 공약적 가치실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고 더 이상 농민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농촌분야와 관련해 ▲농어민 기본소득보장법 제정으로 지방소멸위험과 국토불균형문제 해소 ▲농어업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구축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공익형직불제 예산 최소 3조원,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어업 예산비중 5%이상 확보 ▲공익형직불제에 수산직불 및 산림직불 포함 ▲취약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산 및 전남 동부권을 찾는 관광인구를 강진만·특랑만권의 중남해안권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970년대 초반 허더라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인구는 50만명을 육박했지만, 지금은 1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김화진(무·61)**  


**전남대 일반대학원 졸업(체육학박사)**  
(현)전라남도체육회 자전거연맹 회장  
(전)전라남도 사회경제적 육성위원

- 대한민국 농어업 문화관광특구로 조성
- 고흥읍~나로도 우주센터 4차선 도로 확장
- 보성지역은 국립 보성소리대학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정부·지자체 협조를 바탕으로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 오겠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농민수당 및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등 농정 5대 정책 ▲국회의원 소환제 ▲지역구 교통 여건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 예비후보는 "상대적 거기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임기 내내 농어업 예산 비중 확대를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쌀 문제 해소를 위한 쌀 저장법 마련, 임업직불제 도입 및 공익형 직불금 인상, 농민수당 및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등 농정 5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보장강'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속철도 조속 개통, 국도 연장 및 관리, 지방도 불편해소 등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김화진 예비후보도 김승남·황주홍 예비후보에 맞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고흥 출신의 김화진 예비후보는 전남도 체육회 자전거연맹 회장으로, '고보장강' 지역을 대한민국 농어업 문화관광 특구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공약으로 고흥의 경우 우주항공센터와 연계한 문화관광권 조성 및 고흥읍~나로도 우주센터 4차선 도로 확장, 보성지역은 국립 보성소리대학원 설립, 장흥은 탐진강 유역 스포츠 문화관광권 조성, 강진은 도자기와 병영성 역사 문화관광권 육성 계획을 내놓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장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061)322-6183